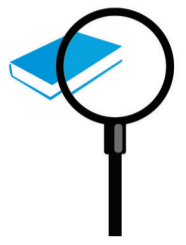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 국가 권력을 위해 건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건축과 국가 권력 이야기

서윤영 지음

“태조 이성계는 고려 남경의 궁궐이었던 연흥전을 재빨리 헐어 버리고 연흥전의 바로 앞에 새 궁궐인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조선이 건국한 것이 1392년이고 320여 칸의 경복궁 전각이 완성된 것이 1395년이므로,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바로 한 일이 연흥전 허물기와 경복궁 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기발한 건축가들”의 저자인 서윤영 건축 칼럼니스트의 얘기다. 권력자들에게 건축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조선은 건국한 이성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표징으로 고려 궁궐을 부수고 그 앞에 경복궁을 건축했다.

건물, 다시 말해 건축은 국가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아니 그것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제 강점기 그들의 조선의 침략 본산은 조선 총독부였다. 1926년 조선총독부가 완공된 자리는 경복궁 바로 앞이었다. 지금의 흥례문이 있던 자리로, 조선 총독부는 6조 관청의 꼭대기이며 경복궁 바로 아래에 들어섰다. 조선의 전통과 체계를 해체하고 총독부가 모든 권한을 관할하겠다는 야욕을 보여주는 증거다.

건축 칼럼니스트인 서윤영이 펴낸 ‘건축과 국가 권력 이야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구 유럽 등 주요 도시들의 건축과 권력의 관계를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세상을 바꾼 건축’, ‘대중의 시대 보통의 건축’ 등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발간했으며 건축을 모티브로 사회, 문화, 역사 이야기를 쓰고 있다.

책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건축과 도시 이야기가 수록돼 있어 일반인들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지배되지만 도시는 ‘보이는 주먹’에 모습이 좌우된다.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국민을 지배하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도시와 건축이다. 따라서 국가는 가장 강력한 건축 주인 셈이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절대 왕정을 이룬 국가였다. 루이 14세의 ‘집이 곧 국가다’라는

선언은 단적으로 이를 방증한다. 루이 14세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귀족들을 모두 베르사유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귀족들이 궁정 안에 모여 살면서 사치 경쟁이 심화됐는데 있다.

프랑스 절대 왕정은 16세기까지 지속됐는데 그들의 화려한 무대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이었다. 왕립 아카데미 출신 건축가들의 설계와 몇 번의 증개축 과정을 거치며 웅장해졌다.

그러나 프랑스 절대 왕정은 대혁명으로 인해 무너진다. 나폴레옹 승리를 기념하고 새로운 프랑스 탄생을 보여주기 위해 개선문을 세운다. 1806년 시작해 1836년 완공됐는데 건축가 장 샬그랭이 설계했다. 절대 왕정 시기는 웅장하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이었지만 이후에는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고대 그리스 양식을 재해석한 신고전주의가 유행한다.

19세기 독일 연방은 통일로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었다. 300여 개 군소 나라 가운데 부강했던 나라는 바이에른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정도였다. 바이에른은 박물관과 발할라를 짓는 방식을 통해 역사를 재창조한다. 저자는 “이 둘은 국가 상징 시설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후대 왕인 루트비히 2세가 지은 세 개의 궁전은 호화롭기만 할 뿐 왕 하나만을 위한 별장에 불과”했다고 본다.

히틀러는 강력한 세계 제국을 꿈꿨던 야심가였다. 그는 비스마르크 집무실이 있던 곳에 총통 관저를 지었다. 그러나 독일이 패망해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자, 동독 측은 프로이센과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뒤 고려 남경의 궁궐이었던 연흥전을 헐고 바로 앞에 경복궁을 지었다. 사진은 경복궁 내 근정전.

히틀러 시대 남은 건물을 부수고 사회주의 건물을 올린다.

이밖에 책에는 러시아 혁명이 불러온 건축의 변화, 일본 근대화와 관련된 건축 양식 등도 소개돼 있다.

저자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사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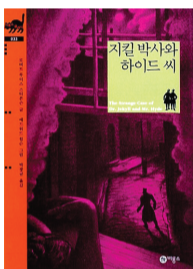
〈철수와영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지음, 이영아 옮김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면성이 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 등 사람들 내면에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잠재돼 있다. 고전 가운데 이를 대변하는 인물로 지킬과 하이드가 있다. 전자는 순수한 인물로 표상되고 후자는 쾌락, 욕망으로 상징화된다.



세기의 고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출간됐다. 지금까지 수많은 버전으로 나온 이 작품은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명작으로 손색이 없다. 저자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로 유년시절부터 모험은 물론 책을 좋아했다. 변호사이지만 글쓰기를 좋아해 ‘보물섬’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당초 이 소설은 138년 전인 1886년에 세상에 나왔다. 이후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창작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영화, 연극,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져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드리워진 선과 악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의미있게 형상화했다.

밤이면 안개로 가득한 런던의 음산한 거리, 변호사 어터슨은 하이드라는 존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나선다. 한편 선행을 실천하는 지킬은 점차 은둔형으로 변해가고, 친구인 어터슨은 지킬의 서재를 강제로 연다. 그곳에서 음독자살한 하이드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벤에 나온 작품은 서사가 지닌 이야기의 힘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세월이 흘러도 고전이 지닌 스토리는 여전히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책을 번역한 이영아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여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와 생각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소의 책·1만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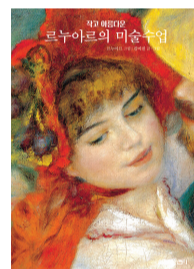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작고 아름다운 르누아르 미술수업

김미진 글·그림

“나는 더욱 행복한 그림을 그리 거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림.”

프랑스의 대표적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행복과 따스함이 묻어난다. 화가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행복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다.



화가 르누아르의 삶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작고 아름다운 르누아르 미술수업’은 세계적인 미술가의 깊고 감동적인 예술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가이자 화가인 김미진 작가가 한 편의 동화로 엮은 책이다.

‘김미진 선생님이 들려주는 미술동화’ 시리즈를 새롭게 구성해 엮은 ‘작고 아름다운 미술수업’의 첫 번째 주인공은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다. 르누아르는 솜털처럼 부드러운 화법과 투명하게 반짝이는 색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물한 작가다.

책은 르누아르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 중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화가의 삶 전체를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르누아르의 수많은 작품들이 창조된 예술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르누아르가 ‘인상파’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르누아르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였는지, 그의 작품이 당대 예술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미술사의 흐름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책 말미에는 ‘르누아르는 누구인가?’ 코너와 프랑스 카누 슈르 메르에 있는 르누아르 미술관에 소장된 화가의 작품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준다.

‘작고 아름다운 수업’은 르누아르 미술수업에 이어 바스키아, 샤갈, 고흐, 다빈치, 피카소, 고갱, 미켈란젤로의 미술수업 등으로 이어진다. 〈열림원어린이·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집중의 재발견

글로리아 마크 지음, 이윤정 옮김

전화를 받으면서 이메일을 훑어보고, 동시에 라면을 끓이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본 적 있는가. ‘대 멀티태스킹’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같은 일상 속 다중작업은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덕목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집중하라’는 명제는 그리 쉽게 달성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주의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다양하고, 일의 경중을 정확히 헤아리기란 늘 어렵기 때문. 심지어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순간이라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능수능란한 일처리의 리듬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UC버비대 정보학과 석좌교수 글로리아 마크가 ‘집중의 재발견’에서 20년 넘게 주의집중을 주제로 연구해 온 결과들을 집대성했다.

그는 우리의 주의집중 상태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 첫째는 어려운 활동에 깊게 관여하는 ‘집중적 주의집중’ 상태다. 사람들이 도전적인 과제에 몰입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그것. 이어 ‘무념무상 주의집중’ 상태는 어렵지 않은 과제에 깊게 관여하는 것이며, 흔히 ‘데트리스’나 ‘헵사’ 등 간단한 게임을 할 때 나타난다.

이외에도 ‘지루한 주의집중’, ‘질망적 주의집중’ 상태 등을 구분하면서 상황과 집중력을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모든 직종에 걸쳐 사람들은 느지막한 오전 11시와 한낮인 오후 3시, 이렇게 두 번 집중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업무 시작부터 집중할 준비가 된 채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저자는 인간의 집중력에도 ‘예외’와 적절한 시간대가 존재함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주중에 걸친 집중 리듬이나 멀티태스킹을 유지하는 방법 등 흥미로운 개념까지 소개한다.

〈위즈덤하우스·2만2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